

국회, '尹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與 주도 의결

법원·검찰·국정원·쌍방울 등 50일 조사 대상·위례신도시 등 수사·기소 과정 與 “검찰, 정치적 편향 있었는지 확인” 국회 “대통령 공소취소 빌드업” 반발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약 50일간 진행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전날 오후 4시40분께 국민의힘의 요구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종결한 뒤 계획서를 처리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조의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특위는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대통령실 등 '상부'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과 함께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사건 축

소·은폐·조작 의혹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지방선거 28일 전인 5월 8일까지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포함됐다.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곳도 조사 대상이다. 국조 특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 각 1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은 국조에 대해 “무소불위의 지위를 누리던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의 수사·기소가 정치적 편향 없이 이뤄졌는지 국민 앞에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국조 진행을 막

기 위해 특위에는 참가하지만, 이번 국조의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법 권력으로 지우려 하는 이 시도는 대한민국을 '입법 독재 국가'로 전락시키는 전대미문의 헌정 오점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

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조 계획서 의결과 함께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3박4일간의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종료됐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각각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으며 여당 주도의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수사와 기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권한 행사에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를 국회가 점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정조사권의 정상적인 행사”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공소 취소를 전제로 재판에 개입한다는 국민의힘의 망상적 주장과 달리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특정인을 보호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지위를 누리던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의 수사·기소가 정치적 편향 없이 이뤄졌는지 국민 앞에 확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운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실체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이라며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법 권력으로 지우려 하는 이 시도는 대한민국을 '입법 독재 국가'로 전락시키는 전대미문의 헌정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수 기자

“국립의대 정원, 목포대·순천대 50명씩 배정해야”

주철현, 2개 병원 설립 '균형배치' 제시 “지역거점 병원 활용 섬까지 지원” 강조



지인 섬 지역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은 지리적 특성상 동부권 산업벨트와 서부권 농수산 중심 지역, 그리고 수많은 도서지역이 혼재된 구조로 전국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다. 주 의원은 “전남도민들은 지금도 '아프면 대학병원이 있는 도시와 육지로 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의료서비스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생명권 문제”라고 역설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의사 수 부족과 수도권 집중 구조를 방지한 채 임시 처방만 반복해서는 전남 의료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에서 의사를 선발·양성하고 지역에서 수련하며 지역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전남 동부와 서부에 균형 배치된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은 동·서부를 잇는 양 축 역할을 하며, 도서지역까지 포함한 전남 전역의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터헬기 이송, 권역별 협진 체계 등과 연계하면 좀더 나은 의료 안전망 구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단순한 지역 안배 차원을 넘어, 전남 전체의 생명을 살리는 전략적 배치”라며 “동서와 지역 의료계와의 상생은 물론, 도서·벽지 주민까지 포용하는 진정한 의미의 균형 의료체계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전남 국립의대 유치와 대학병원 설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전남광주통합특례시장 후보라면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시·도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결단으로 전남 어디에 살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전남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립의과대학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례시장 경선에 출마한 주철현 국회의원이 동부권과 서부권은 물론, 도서지역까지 아우르는 '균형 배치' 해법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이 약속한 전남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은 반드시 이행돼야 할 국가적 책무”라며 “목포대와 순천대에 정원 50명씩을 배정해 선발·교육하고 지역 거점병원과 협력해 수련하면서 예산을 확보해 동부와 서부에 2개의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방안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지역 의료계와도 상생하는 방안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의료 취약

조계원 “여수, 소부장특화단지 지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을)은 “여수를 살리려면 여수 국가산단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포럼' 인사말을 통해 “지금의 위기는 경기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범용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소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수산단을 첨단소재 중심 산업으로 재편하지 않으면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는 어렵다”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은 산업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지금 AI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경쟁이 치열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매출 대비 고용 효과가 크지 않다”며 “오히려 소부장 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I와 로봇 산업 역시 소재·부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며 “여수산단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반드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광주 '100인의 아빠단' 모집

광주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가족 친화적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6년 제8기 광주 100인의 아빠단' 참여자를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광주 100인의 아빠단'은 육아에 관심 있는 아빠들이 함께 모여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다. 모집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3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2018~2023년생) 자녀를 둔 아빠로 100명을 선착순 선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아빠는 네이버 카페 100인의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 광주 게시판이나 안내문에 포함된 정보머니(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변은진 기자

꽃피는 봄에도, 어르신들의 밥상에 여전히 찬바람만 불니다.

텅 빈 냉장고, 다 쉬어버린 김치, 말라붙은 라면 국물.
월 2만원, 정기후원으로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봄을 선물해 주세요.

#사랑의 도시락 배달 #전국 26개소 무료급식소 운영 #독거노인 기초생활 개선지원

ARS 무기명 후원 **060-708-1004** (1만원) 후원문의 **1811-1004**

QR 인식